

민과 관이 협력하여 배움이 꽃피는 마포

글 ·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성마산 마을 축제(사진·가림토)

서울시 마포구는 오래된 도시다. 조선시대 지금의 마포구 일대에 있던 마포나루, 서강나루, 양화나루는 한강을 거슬러 수도 한양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던 어선과 상선들의 종착지였다. 삼남지방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물건들이 한양으로 들어오던 길목이었던 마포는 따라서 늘 새로움이 흘러넘치는 곳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물자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과 통로인 시장에서 정보가 유통되고 새로운 지식이 생성된다. 그래서 우

리는 도시 문명의 형성과 발전을 얘기하며 시장을 떼어 놓을 수 없다. 시장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귀동냥하던 촌로들은 물론 생존과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장사의 이치를 터득하던 젊은 영혼들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배움터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혹자는 시장 바닥이 아닌 서책 속에서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서책이란 것도 실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길이 있을까?

예로부터 지식과 정보가 흐르던 길목에 있었기 때문일까, 오늘날 마포는 국내에서 출판사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은 곳이다. 혹자는 마포 일대에 일 년에 적어도 한 두 권 이상의 책을 내는 출판사가 700개는 될 거라고 한다. 파주에 대단위 출판단지 생긴 지 꽤 됐지만 여전히 마포는 국내 출판산업의 메카이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저렴한 사무실 비용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마포에 출판사가 많은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합리성이 통할 곳은 마포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내 눈에는 마포라는 지역이 가진 배움터 기운이 범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주민센터에서 꽃피는 인문학 - 마포열린강좌

난지도 쓰레기장이 하늘공원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과 디지털미디어센터가 자리 잡고, 마포대교를 건너 종로로 나아가는 공덕동과 도화동 부근에 높은 고층 빌딩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마포는 쾌적한 현대적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마포의 외양적 발전 속에 옛날 말로 동사무소, 요즘 말로 주민센터에서는 실로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센터에서 꽃피는 인문학 - 마포열린강좌’라는 간판이 걸린 지가 벌써 3년째에 접어든 것이다.

2006년 초등학교 교장을 퇴직하고 일 년 간 큰 병치레를 한 박영임(마포구 중동) 씨가 노년의 활력을 되찾은 계기는 ‘마포열린강좌’를 만나게 되면서였다. 박 씨는 병석에서 일어난 뒤 무언가 배워야 삶의 재미가 생겨날 것 같아, 여기 저기 강좌를 기웃거렸다. 초등학교사로 음악 과목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술 분야에 관심이 컸다. 그래서 광화문과 강남의 유명한 공연장과 사설 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술 강좌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 하는 강좌의 수강료가 30~40만 원에 달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축된 마포구청 지하 평생학습센터에서 여는 인문학 강좌 소식을 접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수강료도 2만 원에 불과했다. 서양고전음악과 미술사 공

부로 작년 일 년을 행복하게 보낸 박 씨는 올해는 작심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을 인문학 공부로 보내고 있다.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낮에는 서양철학과 오페라를, 목요일 아침에는 한시와 고서에 담긴 사자성어를 통해 중국 역사를 배우러 마포구청으로, 목요일 저녁에는 지하철을 타고 서강동 주민센터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한다. “아현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현대미술 리얼리티 강좌나 염리동 주민센터의 문화로 보는 세계사 강좌도 꼭 듣고 싶는데, 시간이 겹쳐서 들을 수가 없어요.” 박 씨의 행복한 고민이다.

구청에서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마포열린강좌’를 들으러 다니는 가정주부 이해경(마포구 상암동) 씨도 “알게 되면 더 많이 보인다더니 공부할수록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보다 책도 더 많이 읽게 된다.”고 한다.

지난 2006년 가을, 유명 대학의 인문대 교수들이 인문학이 위기라며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은 적이 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당시 회자되던 인문학 위기론 목소리는 오간 데 없이 찾아들었다. 그렇다고 대학 강단의 인문학이 위기로부터 탈출해 재도약하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은 여전히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소위 ‘스펙’ 쌓기로 내몰리고 각종 고시가 최선의 졸업 대책이라는 풍조가 완화된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강단의 인문학 형편이 더 나아졌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대학 바깥에서는 전에 없던 일이 생겨나고 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필부필부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인문학 공부로 삶의 희망을 찾으려 돕자는 한국판 클레멘트 코스들이 여기저기서 시도되고 있다. 시민단체 인권연대는 교도소를 찾아가 재소자들에게 시와 철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 대학들도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공개강좌를 열며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마포실천인문학네트워크

이 가운데서도 확실히 눈에 띄는 움직임은 강단 인문학이 아닌 실천 인문학을 주장하는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마포실천인문학네트워크(마실네)’의 출범이다. ‘철학아카데미’, ‘다중지성의 정원’, ‘폴로 엮은 집’, ‘지행네트워크’, ‘진보 2.0’, ‘문지문화원’ 등 ‘마실네’ 참여단체들은 모두 마포에 터를 잡고 있다. 마포에 출판사가 많아서 인문학 단체들도 마포에 몰려들었던 것일까? 마포의 배움터 기운은 분명 남다르다.

‘마실네’는 마포의 주민센터에서 인문학을 꽃피운 한 주역이다. ‘마포열린강좌’는 2008년 8월 마포구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과 ‘마실네’ 참여단체인 ‘폴로 엮은 집’이 일종의 실험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한국 사상사>와 <클래식 음악>이라는 두 강좌를 진행한 것이 첫 삽이었다.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아서 그 해 12월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음악과 역사 분야를 넘어 강좌도 다양화했다. <여섯 가지 변주로 듣는 클래식 음악>, <고전을 통해 읽는 서양사상의 흐름>, <서양 미술사>, <인물을 통해 읽는 서양철학의 지혜>, <한시의 바다로 떠나는 여름휴가>, <그리스 신화



‘마포열린강좌’에 주목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라서가 아니다. 이 강좌 운영이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로 읽는 인간과 세계, <철학교전강독> …….

처음에는 6주 과정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8주 과정을 한 학기로 하고, 일부 강좌는 2개 학기에 걸쳐 제공해 두 번째 학기에는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강좌는 <인간과 세상을 보는 동양의 지혜>, <우리 집 짓는 이야기>, <우리 역사 다시보기>, <문화로 보는 세계사>, <서양철학의 이해>, <오페라 이야기> 등이다. 이 강좌들은 매주 두 시간 강의로 진행된다. 대학 강의로 치자면 2학점 강의인 셈이다. 지금까지 약 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마포열린강좌’에 주목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인문학 강좌라서가 아니다. 이 강좌 운영이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지역의 평생학습 문화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마포구청 평생교육팀은 평생학습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재정, 홍보, 강좌 운영 일체를 책임진다. 주민센터는 강의실을 제공하고 수강생 접수 업무를 돕는다. ‘폴로 엮은 집’에 이어 지금은 ‘문지문화원’이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강좌 기획과 강사 섭외 등을 맡고 있다. 구청에서는 저녁 시간 강의 관리를 위해 강좌 진행을 돕는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배치해, 수강생과 강사들에게 필

요한 지원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지역 파트너십의 중요성

마포구청 안지현 평생교육사는 “지자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배려를 하느라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중산층 고학력 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포열린강좌’를 기획했다.”며 “지역의 좋은 인문학 자원들과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를 했다.”는 말로 지역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포의 평생교육 파트너십은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과 함께 올해 새로 시작한 <마포지역 문화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마포의 구석구석에 깃든 역사와 문화를 해설할 수 있는 준전문가가 될 것이다.

마포구와 인근 서대문구는 신촌 대학가로 통칭되는 우수 대학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2008년 8월 정년퇴직한 이준환(마포구 성산 2동) 씨는 마포구가 인근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열렬 팬이다.

<연세-마포구민 교양 대학 3기>, <마포-서강 마흔 이후 인생학교 1기>, <마포-서강 평생교육지도자 과정

2기), <마포-서강 자원봉사대학 2기>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마포-서대문-명지전문대학이 3학기 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의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과정>을 다니고 있다. 여기에 올해 5월부터는 <마포-서강 인생학교>에도 나간다. 이 씨는 이외에도 서강대 평생교육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셀프 리더십 과정>, 홍익대 미술디자인교육원의 <한국화 과정>도 다녔다. 한국화 과정은 8년 넘게 다녀서 지금은 미술협회 한국화 부분 회원이기도 하다.

마포에서만 35년을 거주한 토박이 이 씨는 몇 해 전부터 마포 지역에 구청이 대학과 손잡고 제공하는 저렴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마포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단언한다. 이 씨는 지금 수강 중인 평생교육사 과정을 마치고 2급 자격증을 받으면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봉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지역 고령 인구의 문화예술 소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평생학습시대

마포구는 25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21.5%나 된다. 이 가운데 고졸 이하 학력자가 71.3%, 60세 이상이 52.3%에 달한다. 이 씨는 “조금만 둘러봐도 고령자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많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또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많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온 것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아마도 이 씨처럼 지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활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다시 지역의 시민들에게 환원하려는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시대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평생학습시대의 교육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향유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포의 자랑거리, 성미산 마을

시민사회에 잘 알려진 마포의 자랑거리는 ‘성미산 마을’이다. 마을이란 정감어린 단어를 이젠 도시에서 쉽게 찾기 힘들다. 한때 몇몇 아파트들이 OO마을이란 이름 붙이기 경쟁을 하는가 싶더니, 이젠 그것도 뜻도 잘 모르겠는 외국어 브랜드들에 밀려난 지 오래다. 성미산 마을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작은 동산인 성미산 주변의 동네를 가리키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과는 좀 다른 어감이 있다.

성미산 마을이 살아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마을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것이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윗마을, 아랫마을이란 단어에서도 엿보이듯 마을은 지리적으로 매우 동질적인 공간을 뜻한다. 또 같은 마을 사람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된다. 그런데 ‘성미산 마을’은 지리적 공간으로 그 실체를 논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성미산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미산 마을에 사냐고 묻는다면 “글쎄요”라고 답할 사람이 더 많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성미산 마을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며 벤치마킹하는 곳으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마을을 구경 오고 싶은 이들이 줄을 선다.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시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시민사회운동의 모범 사례로 성미산 마을을 주목한다. 어느새 성미산 마을은 연구 대상이 된 것이다.

성미산 마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초창기부터 성미산 마을의 형성에 참여해 온 유창복 씨는

1994년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시작한 소박한 모임이 2003년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농축했고, 그 에너지가 다양한 모양새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지금 성미산 마을

에는 초창기부터 있

었던 공동육아 어린이집 외에도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 마포공동체라디오방송국 ‘마포FM’, 생태마을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멋진 지렁이’, 유기농카페 ‘작은 나무’, 마을대동계, 마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성미산 마을극장, 친환경 마을 식당인 성미산 밥상 등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생성되고 있다.

마을이란 본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또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곳이니, 성미산 마을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은 이 마을이 살아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성미산 마을이 살아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마을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것이 교육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내 자식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고민한 것이 성미산 마을이 생겨난 계기이기도 하지만, 이 마을이 확산되고 모종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육아로 키우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어 생겨난 대안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됐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여러 일을 해결하는 것이 마을의 일이 되고, 그 일을 해결하며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 성미산 마



성미산 마을극장에서의 공연(사진·가림토)

을에는 수없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간다.

사람 사는 터가 되다 보니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새로운 공부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모여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발표하고 나누는 마을축제는 어느새 소문난 볼거리가 됐다. 삶과 얹, 공부와 여가는 원래 다른 말이 아니었다. 잘 놀면, 잘 공부하게 된다. 잘 사는 것은 삶을 추구하는 것과 동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발전하면서 국민 수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민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민교육, 평생교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곱씹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모든 시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사방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6년 전 마포로 이사와 이젠 ‘마포열린강좌’에 폭 빠져 마포를 떠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박영민 씨의 말이다. 마포에 피어난 배움의 꽃의 진한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 땅의 다른 모든 도시들이 꿈꾸는 행복과 어울려지기를!